

元曉 『起信論別記·疏』의 전승 조사와 定本化 시도*

A Study of the Transmission and Critical Editing of Weonwho's *Kishinronbyeolgi* · so

김 천 학 (Kim, Cheonhak)**

◁ 목 차 ▷

- | | |
|--------------------------|------------------|
| 1. 문제의 소재 | 4. 『別記』와 『疏』 定本化 |
| 2. 『別記』와 『疏』의 전승 | 4.1 『別記』의 定本化 시도 |
| 2.1 『別記』의 전승 | 4.2 『疏』의 定本化 시도 |
| 2.2 『疏』의 전승 | 5. 결론을 대신하여 |
| 3. 『起信論疏·別記』(會本)의 성립과 전승 | <참고문헌> |

< 초 록 >

원효의 저술 가운데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대승기신론소·별기』(회본)이다. 원효의 기신론 사상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수에 이르지만, 문헌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의외로 적다. 본고는 원효의 기신론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別記』와 『疏』를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계승하였다. 특히, 원효 기신론 관련 저술에 대한 문헌학적 정리를 통해 원효의 『別記』와 『疏』 그리고 『會本』 세 텍스트 각각의 유통과정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각 텍스트가 지니는 의의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탐구를 바탕으로 『疏』와 『別記』 일부분에 대한 定本화를 시도하여 전체의 定本화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우선, 『別記』는 나라시대부터 활용되는데, 현재 저본은 에도시대 간본이지만, 이것을 정확히 독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자와 문고 사본의 존재가 중요함을 밝혔으며, 『疏』도 역시 현재 저본은 에도시대 간본인데, 해인사 사간본 『疏』 단간을 통해 현재 저본의 오류가 밝혀진다는 것을 밝힌다. 한편, 『會本』은 『別記』를 다 수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1781년의 에도시대 간본을 참조하여 고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 『會本』을 통해 『別記』를 연구하거나 역주할 경우,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한편, 기존의 『疏』 인용문의 재검토를 통해 『別記』와 『疏』 이외의 원효의 기신론 관련 저술을 확인했다는 것도 중요한 수확이다.

要語: 원효, 간본, 『별기』, 『소』, 『회본』, 문헌학적 방법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61-A00008).

본고는 2017년 10월 19-20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한국불교문헌의 확장성과 定本化』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확장시킨 것임을 밝힌다.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godam@dongguk.edu)

접수일: 2018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3월 4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2일
서지학연구, 제73집, 157-178,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157>)

<ABSTRACT>

Although there are a lot of studies on Chihsinlun thought of Weonhyo, there are very few articles approached from a philological point of view. In this paper, in order to understand his thought of Chihsinlun, first of all, I examine three literatures, “So (疏)”, “Byeolgi (別記)” and “Hwebon (會本),” from the philological method, and as a result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re is a need to make a critical edition.

“Byeolgi” has been used in Japan since the Nara period, but the current edition is based on a printed book of the Edo period. However,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Byeolgi”, the existence of “Byeolgi” in Kanazawa Bunko (金澤文庫) is important. The current edition of “So” is also based on a printed book of the Edo period, but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errors of the current edition through a fragment of “So” in Haeinsa temple. From these points, both texts should be edited critically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Hwebon” includes only a part of “Byeolgi”, and that the text was revised without any notices with reference to the printed book published in 1781. Therefore, the previous researches based on the translation of “Hwebon” have problems.

Finally, it is also an important result that a long sentence of his work on Chihsinlun was newly found by reexamining the quotation of “So” in Japanese literature. It is quoted as “So”, but in fact it cannot be found in the current version.

Key words: weonhyo, printed book, “Byeolgi(別記)”, “So(疏)”, “Hwebon(會本)”,
the philological method

1. 문제의 소재

원효의 저술 가운데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대승기신론소·별기』일 것이다. 그것은 1991년 은정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서울: 일지사)의 간행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본서는 1977년 해인승가학원에서 간행한 『대승기신론소기회본』(이하 『會本』)을 텍스트로 하였다. 이후 이 해인사본을 저본으로 『한국불교전서』 1권에 『會本』이 수록된다. 이 텍스트는 『기신론』 원문과 원효의 『기신론소』(이하 『疏』)와 『기신론별기』(이하 『別記』)를 회본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會本』에는 『別記』 내용을 일부만 수록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疏』와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會本』 텍스트의 역주작업이 간행된 이후 『別記』와 『疏』를 별개의 저술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¹⁾ 하지만, 그 이후의 역주작업도 대부분 『會本』을 텍스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원효 『기신론』 사상의 연구에서 『疏』와 『別記』의 의미를 구분하려는 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원효의 기신론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別記』와 『疏』에 대해서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그 일환으로 『疏』와 『別記』, 『會本』 세 텍스트 각각의 유통과정과 문제점을 문헌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밝히고, 아울러 각 텍스트가 지니는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疏』와 『別記』 일부분에 대한 정본화를 시도하여 전체의 정본화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2. 『別記』와 『疏』의 전승

2.1 『別記』의 전승

2.1.1 韓國佛教全書本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起信論別記』 텍스트는 大正新修大藏經 44卷(1927년 간행)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底本으로 하여 『韓國佛教全書』 1권(1979년)에 수록된 것이다. 大正藏本 『別記』는 萬治二年(1659)刊 宗教大學藏本을 원본으로 하며 비교본은 없다. 그리고 원본의 소재를 나타내는 각주 외에는 주기가 단 한 곳도 없다. 韓佛全本은 당연히 1659년 간본을 원본으로 하지만, 誤字, 剩字 등에 대한 편집자 주 73곳이 있어 『別記』 텍스트 독해에 도움이 된다.

『別記』의 전승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정창원 문서의 사경기록과 장소목록류, 그리고 각 문헌에

1) 박태원, 『大乘起信論思想研究』(서울: 민족사, 1994), 221-247.

서의 『別記』 인용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疏』의 전승을 확인할 때도 통용됨을 미리 밝혀둔다.

2.1.2 正倉院文書와 目錄類

正倉院 文書 가운데 사경소 기록은 동아시아 불교문헌의 유통과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의 사경사업은 일반적으로 경전류가 중심이 되지만, 天平 15년(743)에 방침이 명확히 변경되어 別生經 혹은 章疏를 필사하기에 이른다.²⁾ 『別記』가 정창원 문서에 처음 기록이 보이는 것도 天平 15년(743)이다. 이후 22회 정도의 필사에 관한 기록이 확인되며 神護景雲元年(768)까지 기록이 보인다.

한편, 目錄類는 福士慈稔의 연구를 참조하여 『別記』의 전승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³⁾

<표 1> 목록류로 본 『別記』의 전승

名稱 및 編輯年代	編者	引用名稱 및 卷數
華嚴宗章疏並因明錄(914)	圓超	起信別記一卷
新編諸宗教藏總錄(1090)	義天	大乘起信論別記一卷
東域傳燈目錄(1094)	永超	大乘起信論別記一卷
注進法相宗藏疏(1176)	藏俊	起信論別記一卷
華嚴宗經論章疏目錄(?)	凝然(1240-1321)	起信論別記一卷
佛典疏鈔目錄(?)	興隆(1691-1769)	大乘起信論別記二卷
密宗書籍目錄(1734)	?	大乘起信論別記二

위 두 정보원으로부터 『別記』가 나라시대 정창원 기록, 첫 목록류인 平安時代의 『華嚴宗章疏並因明錄』에서부터 江戸時代까지 전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도시대에 권수가 2권으로 기록된 것은 현재 大正藏 및 韓佛全의 원본이 本末 2권이었고, 그것이 주로 전승·유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1.3 引用狀況

원효는 『別記』가 세상에 유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⁴⁾ 『別記』는 위의 正倉院 文書에서 볼 수 있듯이 奈良時代에 일본에 전래되었을 뿐 아니라, 인용상황을 통해 일본보다 먼저 중국에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吉津宜英이 지적했듯이 법장의 『기신론의기』에서 『別記』를

2) 佐々田悠, “정창원문서와 광명황후원경,” 『書誌學研究』 제56집(2013. 12), 521-544.

3) 福士慈稔, 『新羅元曉研究』(동경: 大東出版社, 2004), 147-171.

4) 『別記』 『爲自而記耳. 不敢望宣通世. 述大意竟』(H1.678b, T44.226b)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⁵⁾ 그 외에도 『의기』에서 『別記』를 인용한 문장을 확인할 수 있고,⁶⁾ 『別記』를 참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⁷⁾ 법장이 『의기』를 저술할 때 『疏』 외에 『別記』도 참조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중국에서 『別記』의 전승 혹은 인용은 福士慈稔의 조사에 따르면 법장 이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⁸⁾

한편, 신라에서는 太賢의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에서 『別記』의 인용이 상당수 확인된다.⁹⁾ 당의 법장은 『別記』를 참조하지만 『疏』를 더 중시하였다. 그러나 태현은 『疏』와 동등하게 『別記』를 중시하였다. 이후 현존 신라문헌에서 더 이상 『別記』 인용 예를 찾을 수 없다. 崔鉉植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시대 초기의 대표적 華嚴學僧이었던 均如의 저술에서도 원효의 『別記』가 인용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¹⁰⁾ 비록 『義天錄』을 통하여 고려시대에 『別記』가 현존하였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이후 한국불교 문헌에서 『別記』의 인용이 전무할 만큼,¹¹⁾ 원효의 『別記』는 점점 잊혀 갔다.

일본의 문헌에 『別記』가 인용된 예는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正倉院 文書기록으로 본 『別記』의 전승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여회 필사된 결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일본에서 신라불교를 중시한 까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에서 『別記』가 인용된 예는 역시 福士慈稔의 연구에 자세하다.¹²⁾

- 5) 吉津宜英, “元曉の起信論疏と別記との關係について,” 『韓國仏教學SEMINAR』 9(2003. 12), 321-339. 구체적으로는 ‘攬理以成事’(H1.679c, T44.227c)를 ‘攬理成事門’(T44.251c)으로 인용한 예와 ‘此今論主總括彼經始終之意故’(H1.683b, T44.230a)라는 문장이 ‘今此論主總括彼楞伽經上下文意作此安立故’(T44.255b)라는 문장으로 인용된 예를 들고 있다. 부연하면, 攬理以成事 구문이 나오는 곳의 泯相不除라는 표현은 원효만이 사용하는 것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의 섭의, 시의 등의 사유 자체도 별기의 구상을 가지고 왔다. 다만, 법장이 원효를 인용하더라도 사유를 달리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기』에서는 섭의와 시의가 다르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법장은 섭의는 균등하고, 시의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한 예이다.
- 6) 김천학, “쇼묘지소장·가나자와 문고 관리 원효 『기신론별기』의 기초연구,” 『한국사상사학』 제56집(2017. 8), 266. 참조. 구체적으로는 ‘乃至究竟, 還同本覺’(H1.683b, T44.230a)
- 7) 元曉疏: 言智淨相者, 正明隨染本覺之相. 不思議業相者, 明此本覺還淨時業也.(H1.711a, T44.211a)
元曉別記: 智淨相者, 明本覺隨染還淨. 不思議業者, 是還淨之用.(H1.687b, T44.233a)
義記: 言智淨相者, 明本覺隨染還淨之相. 不思議業相者. 明還淨本覺業用之相.(T44.259c)
- 8) 福士慈稔, 『新羅元曉研究』(동경: 大東出版社, 2004) 참조.
- 9) 박인석 옮김, 『대승기신론내의약담기』(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특별히 引用名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疏』와 『別記』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어느 쪽을 인용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譯者가 『別記』 문장의 인용을 다수 확인하고 있다. 참고. pp.82-83, 92-93, 98, 112, 139-140, 161-164, 166-168, 175, 189-191.
- 10) 崔鉉植, “均如 華嚴思想 研究-教判論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135-138.
- 11) 福士慈稔(2004).
- 12) 福士慈稔(2004). 福士는 이후 다음과 같이 4권의 중요한 업적을 간행하였다.
福士慈稔, “日本仏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仏教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天台宗にみられる海東仏教認識 -,” 제1권 (야마나시: 身延山大學, 2011).
福士慈稔, “日本仏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仏教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仏教認識(法相宗の部) -,” 제2권下 (야마나시: 身延山大學, 2012).
福士慈稔, “日本仏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仏教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仏教認識(三論宗の部) -,” 제2권上 (야마나시: 身延山大學, 2012).
福士慈稔, “日本仏教各宗の新羅・高麗・李朝仏教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華嚴宗にみられる海東仏教認識 -,” 제3권 (야마나시: 身延山大學, 2013). 위 福士의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別記』와 『疏』의 인용상황을 고찰할 것이

<표 2> 日本에서의 『別記』 인용 상황

人物	所屬	文獻	引用名
壽靈(?-800-?)	華嚴	五教章指事	元曉, 元曉起信別記, 元曉師別記
圓珍(814-891)	天台	法華論記	別記
藏俊(1104-80)	法相	成唯識論唯量抄	起信論別記*1
證眞(?-1201-?)	天台	止觀輔行私記	元曉師起信論別記
		法華玄義私記	元曉師
順高(?-1254-61-?)	華嚴	起信論別記聽集記	元曉大師別記
凝然(1240-1321)	華嚴	五教章通路記	丘龍大師
		勝鬘經疏詳玄記	海東, 別記
湛睿(1271-1346)	華嚴	起信論義記教理抄	海東別記, 元曉起信別記, 元曉別記
		五教章纂釋	元曉起信論別記
賴瑜(1226-1304)	眞言	釋摩訶衍論開解鈔	曉別記, 彼師別記, 曉師別記
賴寶(1279-1330)	眞言	釋摩訶衍論勘注	元曉別記, 元曉起信別記, 元曉起信論別記, 起信論別記, 元曉
實英(1550-1637)	華嚴	五教章不審	起信別記元曉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꾸준히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후쿠시는 *1의 문장에 대해서 『起信論別記』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取義 정도로 보자면 없는 것은 아니다.

<표 3> 『유량초』와 『별기』의 비교

成唯識論唯量抄	別記(H1.689a, T44.234b)
元曉對護法宗立量云 第七識意根 與能依識必應同境 不共根故 如眼等五根 云云 起信論別記有之	答.此有二證. 一依比量道理.二依聖言量.比量道理者. 此意根. 必與意識同緣境界. 是立宗也. 爲彼意識不共所依故.是辨因也. 諸是不共所依. 必與能依同境. 如眼根等. 是隨同品言也. 或不同緣者. 必非不共所依.如次第滅意根等.

같은 문장이 湛慧(1675-1747) 『成唯識論述記集成編』에 ‘曉公立量云’으로 인용되지만 이때는 『別記』를 지지하는 문장은 없어서 다른 문헌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¹³⁾ 반면에 헤이안시대 후기에 활동한 藏俊은 『別記』에서 취의한 것이다.¹⁴⁾

며, 위에서 거론한 福士의 연구 이외의 문헌을 참조했을 경우 별도 주기한다.

13) 福士慈稔(2004), 441.

14) 한편, 후쿠시가 지적하듯이 이 문장은 良算(?-1202-)의 『唯識論同學抄』에도 ‘* 文依之新羅元曉對自宗立量云 … 文’(T66.289b)의 형태로 그대로 인용된다. 후쿠시는 이것을 『관비량론』의 일문으로 상정하면서, 『二障義』에 근사한 내용이 있다고 서술한다(福士慈稔(2004), 320). 그런데, 『唯識論同學抄』 해당 문장의 앞에는 “付之. 不共所依, 必與能依識, 同境也”(T66.289b13)라고 덧붙이는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別記』와 『疏』에 공통되는

한편, 후쿠시는 후에 일문을 짐성하면서 2004년의 저술에서 놓친 일문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圓珍의 『法華論記』에서 찾은 두 곳의 『別記』 인용이다.¹⁵⁾ 그런데 조사 결과 그 중 한 곳은 원효의 『二障義』 문장과 일치하여 제외한다.¹⁶⁾ 『別記』 인용을 둘러싸고 조금 장황하게 서술한 이유는 후쿠시의 역작을 활용할 때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원효의 『別記』는 화엄종의 壽靈에게 중시되면서, 헤이안, 가마쿠라, 에도시대까지 전승되면서 인용된다. 인용명칭에 ‘別記’가 명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元曉師, 海東, 丘龍大師 등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화엄종과 진언종에서 중시된 듯하다.

2.1.4 實物の 전승

『別記』는 1659년 간본이 저본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1781년 간본이 있다. 이것은 1659년 간본의 校訂本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정은 본문의 교정이 아니라 행마다 『疏』와 비교하거나, 經論의 典據를 찾아 傍註를 붙여놓아 校正할 준비를 해놓은 것을 의미한다. 후에 서술하듯이 이 1781년본은 중국 金陵刻經處에서 원효 『기신론소·별기』 회본을 만들 때 참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전승본 외에 가나자와 문고에 鎌倉시대의 『別記』 사본이 존재한다.¹⁷⁾ 한편, 京都大學圖書館에서는 『別記』 사본이 하나 더 존재한다. 이것은 藏經書院에서 刊續藏經을 만들기 위해 저본을 베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그 저본은 현재로서는 1659년 혹은 1781년의 간본으로 추정된다.¹⁸⁾

이렇게 『別記』의 실물은 3종류의 전승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본의 존재는 『別記』 간본과 대조를 통해 정본화를 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문장이므로, 둘 중 한 문헌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데 위 문장도 ‘文依之’라는 식으로 덧붙이는 문장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唯識論同學抄』에서도 ‘立量’의 문장을 『疏』 또는 『別記』의 문장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15) 福土慈稔(2011), 42.

16) 『法華論記』(『日佛全』 25, 124下) “曉公立量云. 第七末那意識生時必與同境, 不共所依故, 凡諸所有不共所依. 能依生時必與同境. 猶如眼等. 如其未必同一境者. 見彼一切非不共所依. 如前滅等”인데, 이 문장은 元曉 『二障義』(B32.737a)의 문장과 일치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김천학, “원효 저술 일문(逸文)의 실태와 의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사업의 실효와 지향』 (동국대 불교학술원, 2016.9.30.), 52-53.에서 밝힌 바 있다.

17) 김천학(2017), 245-276.

18) 大藏經報 臨時增刊 제24호(1904)에 따르면, 예상출판 목록 제466번에 『大乘起信論別記 1卷』이 포함되어 있다. 교토대학 장경서원 소장본 사본에는 제목에 권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 등도 있어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하겠지만, 大藏經報에 간본으로 정보가 소개되어 있으며, 글자수, 행수, 중요한 곳의 글자 등이 현재의 간본과 동일하다.
* 본 자료를 제공해 준 이케다 마사노리(池田 將則) 금강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2.2 『疏』의 전승

2.2.1 韓國佛教全書本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起信論疏』 텍스트는 2권본으로 『別記』와 마찬가지로 大正新修大藏經 44卷(1927년 간행)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底本으로 하여 『韓國佛教全書』 1권(1979년)에 수록된 것이다. 大正藏本 『疏』는 元祿九年刊(1696) 宗教大學藏本을 원본으로 하며 비교본은 없다. 비록 비교본은 없지만, 22곳 정도 이본주가 있어, 1696년 개판 당시 원본은 異本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韓佛全本 『疏』는 異本註 외에도 10개 정도의 편집자 주가 있다.

2.2.2 正倉院文書와 目錄類

『疏』도 『別記』와 마찬가지로 正倉院 文書 가운데 天平 15년(743)에 처음 필사 기록이 보인 후 神護景雲元年(768)까지 이어진다. 필사 회수는 동일한 명칭이 혼재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疏』든 『別記』든 743년에 처음 일본에 전래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전래되고 연구되고 있었다. 한 예로, 柏木弘雄가 지적하고 있듯이, 『曇延疏』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識語가 있다.¹⁹⁾

高野山妙瑞律師住如意輪寺之日, 以寶庫本, 所謄寫者, 上下二卷. (予)請以寫之讎校. 下卷全海東疏. 故不寫之. 下卷終記云. 天平十三年歲次(辛巳)十月二日, 隅寺溫室院寫竟. 沙彌行曉.(X45.170a, 新文豐 卍續藏經71.560b)

『曇延疏』 하권이 실제로는 『海東疏』와 전부 같아서 필사를 그만두었다는 내용인데, 『해동소』의 하권 말에 天平十三年(743)에 隅寺溫室院에서 沙彌行曉가 筆寫를 마쳤다는 지어가 있다는 필사 기록이다. 隅寺는 나라시대에 건립된 海龍王寺의 별칭이다. 이로써 사경소의 필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나라 지역에서 원효 『疏』가 유통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目錄類는 『別記』를 조사할 때 참조한 목록류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인용명칭은 起信疏, 起信論疏, 起信論海東疏이며, 권수는 2권으로 동일하다. 위 두 정보원으로부터 『疏』도 『別記』와 마찬가지로 나라시대 정창원 기록, 첫 목록류인 平安時代의 『華嚴宗章疏竝因明錄』에서부터 江戶時代까지 전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9) 柏木弘雄, 『大乘起信論の研究』(동경: 春秋社, 1981), 27-28.

2.2.3 引用狀況

『疏』의 인용상황을 보면 중국에서는 『別記』보다 활용도가 높다. 福士慈稔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동아시아에서의 『疏』 중국 인용 상황

人物(중국)	文獻	引用名
法藏(643-712)	起信論義記	없음
良賁(717-777)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疏	海東法師
澄觀(738-839)	華嚴經隨疏演義鈔	曉公起信疏序, 曉公釋
曇曠(-760-774-)	起信論略述	없음*120)
	起信論廣釋	없음21)
	起信論疏	없음
宗密(780-841)	圓覺經略疏鈔	海東曉法師*2(Cbeta 검색결과)
	圓覺經大疏釋義鈔	
延壽(904-975)	宗鏡錄	曉法師釋, 曉公起信疏序
子璿(965-1038)	起信論筆削記	海東疏, 海東疏義, 海東意
	金剛般若經疏論纂要	曉公起信序
志福(-12c初-)	釋摩訶衍論通玄鈔	海東疏

위의 표에서 福士慈稔이 『楞伽經』 주석서라고 추정된 것 가운데 『起信論疏』로 판명된 두 곳이 良賁과 延壽의 저술에서 확인됨을 밝힌다.

<표 5> 동아시아에서의 『疏』 한국 인용 상황

人物(한국)	文獻	引用名
太賢(-740-)	起信略探記	有釋, 有平, 疏22)
均如(923-973)	釋華嚴教分記圓通鈔	曉公疏23)

福士慈稔은 『華嚴一乘成佛妙義』에서 『起信論疏』를 1회 인용한다고 하지만, 범장의 『義記』와 일치함으로 제외하였다.24)

20) *1과 아래의 *2는 Cbeta 검색결과 원호 『疏』의 인용이 존재함을 새롭게 밝힌 부분이다.

21) 『佛敎學리뷰』 제7집(金剛大學校佛敎文化研究所, 2010): 定源, 참조.

22) 박인석 옮김, 『略探記』(서울: 동국대출판부, 201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崔鉉植의 1988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확인되며, 均如가 『釋華嚴教分記圓通鈔』에서 元曉의 『起信論疏』를 1회만 인용한다고 조사하였다. 福士慈稔은 이를 확인하여 『新羅元曉研究』에서 원문을 제공하였다.

24) 김전학 옮김, 『華嚴一乘成佛妙義』(서울: 동국대출판부, 2015) 참조 바람.

<표 6> 동아시아에서의 『疏』 일본 인용 상황

人物(일본)	所屬	文獻	引用名
智憬(-750-)	華嚴	起信同異略集*	丘龍釋, 丘龍解
壽靈(-800-)	華嚴	五教章指事	元曉
願曉(-823-871)	三論	大乘法門章	曉疏, 元曉法師
覺超(960-1034)	天台	仁王經護國鈔	元曉疏
? (헤이안시대초?)	華嚴	華嚴宗立教義 ²⁵⁾	起信論疏
濟暹(1025-1115)	眞言	金剛頂發菩提心論私抄	元曉師起信論疏
		辨顯密二教論懸鏡抄	元曉起信論疏
?藏俊?(1104-80)	法相	成唯識論本文抄	新羅蕃元曉法師, 曉法師
證眞(-1201-)	天台	止觀輔行私記	元曉起信論疏
		法華玄義私記	元曉師, 元曉師起信論疏
		法華疏私記	元曉疏, 元曉師起信論疏
賴瑜(1226-1304)	眞言	釋摩訶衍論開解鈔	元曉疏, 曉疏, 元曉釋, 元曉
凝然(1240-1321)	華嚴	五教章通路記	元曉大師起信論疏
		勝鬘經疏詳玄記	海東起信疏, 海東
		三聖圓融義顯	海東起信疏
順高(-1254-61-)	華嚴	起信論本疏聽集記	元曉疏* ¹ 曉疏, 海東疏, 元曉之疏, 元曉釋, 元曉ノ疏
		起信論別記聽集記	元曉師, 元曉疏
審乘(1258-1313-)	華嚴	五教章問答抄	元曉大師起信疏, 元曉
信堅(1259-1322)	眞言	釋摩訶衍論私記	元曉疏
順繼(1260-1308)	眞言	釋摩訶衍論第十廣短冊	元曉法師釋, 元曉釋, 新羅元曉, 元曉
眞圓	眞言	菩薩戒本持犯要記助覽集 ²⁶⁾	彼論疏記主
湛睿(1271-1346)	華嚴	起信論義記教理抄	元曉起信疏序, 元曉疏, 元曉師, 元曉, 曉公釋 ²⁷⁾
賴寶(1279-1330)	眞言	釋摩訶衍論勘注	起信疏元曉, 曉疏, 元曉疏, 元曉, 元曉起信疏, 曉師
尊辨(-1307-?)	天台	起信論抄出	元曉疏, 海東師, 海東師釋
託何(1314-1405)	時宗	器朴論	元曉起信論疏
宥快(1345-1416)	眞言	釋摩訶衍論決擇集	海東元曉疏, 元曉海東疏, 元曉釋, 元曉疏, 元曉起信疏, 新羅元曉, 同論疏元曉
鳳潭(1659-1738)	華嚴	起信論義記幻虎錄	海東疏, 海東, 羅國疏, 曉公釋
顯慧(-1696-)	淨土	起信論義記幻虎錄辨偽 ²⁸⁾	元曉疏, 海東疏, 元曉意, 海東意, 羅國疏, 曉公釋, 海東科
基辨(1718-1791)	法相	法苑義林章師子吼抄	元曉起信海東疏

福士慈稔은 『同異略集』을 見登의 저술로 인식했으나, 崔鈺植의 연구 결과(“신라견등의 저술과 사상경향” 『한국사연구』 115호(2001. 12)를 수용하여 일본승 智憬의 저술로 한다.

*1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起信論本疏聽集記』에서는 “元曉疏上”으로부터 大日本佛敎全書 2단 분량의 장문을 취의하여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福士는

25) 金天鶴, 『平安期華嚴思想の研究』(山喜房佛書林, 2015).

26) 원문확인을 위해 日本大藏經을 조사하였다.

27) 澄觀 『演義鈔』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28) 원문확인을 위해 日本大藏經을 조사하였다.

又元曉疏上云。○三寶之義三句分別。第一釋名。第二辨體。其第三明說三寶意{以下略}
(92,266下-267 上) 【引用1(『起信論疏』)】 [元曉 『起信論疏』 (『大正』 44,203 中)]

라고 인용처를 제시하였고, {以下略}으로 내용을 생략하였다. 그런데 원효의 『疏』는 “此中應說三寶之義 義如別說”로 되어 있고, ‘三句分別’ 이하의 내용은 없다. 전후 문맥으로 이해할 때 “元曉疏上”이 『疏』를 지칭하는 것은 틀림없고, 2단 분량의 취의가 끝날 때 “委釋可見彼疏也”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이 『疏』 上卷을 지칭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용된 문장은 『疏』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현존 원효의 저술에서도 전혀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 상으로는 “義如別說”의 ‘別說’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起信論本疏聽集記』에 인용된 내용은 원효의 『기신론』 관련 저술 가운데 명칭만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을 상정해 둘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른 저술에서의 인용을 찾는 등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원효의 『疏』는 『別記』보다 폭넓게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범장이 『疏』를 활용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데, 그 외에도 정관부터 요나라까지 줄곧 활용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화엄종의 智憬, 壽靈에게 중시되면서, 헤이안, 가마쿠라, 에도시대까지 인용된다. 『別記』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화엄종과 진언종에서 중시된 듯하다. 특히, 진언종에서는 『釋摩訶衍論』의 연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태현 이후 『疏』의 활용을 거의 볼 수 없다.

2.2.4 實物의 전승

『疏』는 1696년 간본이 저본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외 원효 『疏』의 사본 단간이 돈황지역과 투르판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定源의 연구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으며, 한국에서 두 번의 강연을 통해 얻은 지건을 『佛教文獻論稿』(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안에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이 사본은 9-10세기에 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이미 2010년의 논문에서 돈황사본 단간과 현 텍스트와의 비교 교감도 이루어졌으므로 활용가치가 높다.²⁹⁾

현재 海印寺에는 『起信曉疏』라는 제목의 板木 1장 앞뒷면(9와 10)이 있다. 본 판목은 藤田亮策에 의해 1944년 조사되었는데, 그는 이 판목을 ‘高麗古刊板殘缺’로 분류하였다.³⁰⁾ 즉 고려시대 판목으로 본 것이다.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설은 없는 듯하다.³¹⁾ 본 판목은 단간이지만, 이것을 통해 기존 텍스트의 오류 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원효 『疏』의 고형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처럼 현재 『疏』의 실물은 돈황사본 단간들, 고려시대 판목 1장과 에도시대 간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저본으로 사용된 에도시대 간본만이 완본이고 나머지 두 종류는

29) 定源, “敦煌寫本より發見された新羅元曉の著述について,” 『불교학리뷰』 제7집(2010. 8), 155-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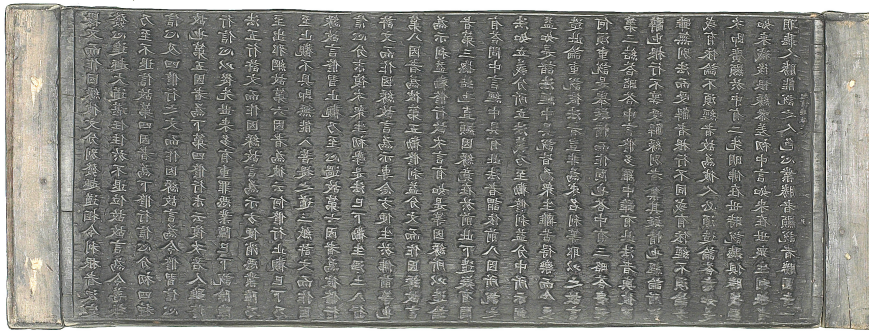
30)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138(朝鮮學會, 1991), 30, 77-78.

31) 함천군·법보종찰 해인사, 『해인사 사간관 보수사업 보고서』 (경남: 해인사, 200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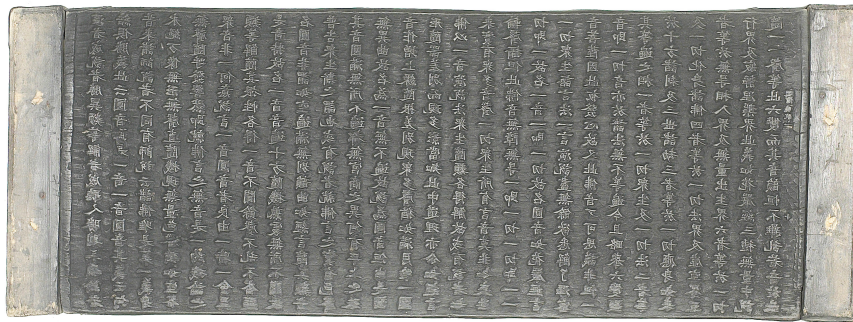
林基榮, “海印寺 私利板殿 所藏 木板研究,”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83-88.

단간이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판목 9-앞면>



<판목 10-뒷면>



* 사진은 해인사대장경연구원 제공

3. 『起信論疏·別記』(會本)의 성립과 전승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효의 저술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大乘起信論疏·別記』會本이다. 원효 저술은 金陵刻經處에서 大藏經 開板을 주도했던 楊文會(1837-1911)가 1899년에 처음 판각하여 간행한다. 이 『會本』은 판각된 후 일본에 보내진다.³²⁾ 일본에서는 메이지시대의 축쇄 대장경 이후 藏經書院에서 『卍正藏』(1902-1905)과 『大日本續藏經』(1905-1912)을 간행하게 되는데, 후자는 중국찬술의 전적을 집대성하기 위한 것으로 章疏類, 禪籍 등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³³⁾ 여기에 『會本』이 수록된다.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會本』은 續藏經本을 甲本으로 하고, 海印寺本을 底本으로 하고 있다.

32) 박현규,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와 한국인 편저 경관,” 『국학연구』 제6집(2005. 봄여름), 473-498.

33) 梶浦晋, “近代における大藏經の編纂,” 『常照』 51(佛教大學圖書館, 2002), 10-15.

두 텍스트는 구성 상 거의 차이가 없다. 우선, 해인사본이 “海東沙門元曉疏并別記”라고 한데 비해 甲本에서는 “唐海東沙門元曉疏并別記”라고 ‘唐’ 한 자가 차이 나는데, 6권 전부에 이러한 상위가 있고, 그 외 교감 상 글자 차이는 8곳 정도에 머문다.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인사본은 금릉각경처본을 다시 판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증은 아직 찾을 수 없지만, ‘唐’자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아 금릉각경처본을 조본으로 하여 한국인에 의해 다시 판각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다만, 현재 해인사본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해인사에 보관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확실한 것은 1944년 藤田亮策이 해인사 雜板을 조사할 때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會本』에 수록된 『疏』와 『別記』의 내용은 일본 에도시대의 판본을 원본으로 한다. 그런데, 편집시에 원본인 에도시대 판본 글자를 수정한다. 특히 『別記』의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이와 같은 예는 이미 지적하였다.³⁴⁾ 어떤 근거로 수정하였을까? 註記가 없어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앞에서 언급했던 1781년 간행의 『別記』校訂本の 존재에 의해 달라진 예가 왕왕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 두 가지 예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 7> 『별기』와 『회본별기』의 내용비교(1)

『別記』(H1.691a, T44.235c)	會本『別記』(H1.760b-c, X45.2206b)
中邊論云. 此識所取四種境界. 謂塵根我及識所攝. 所取既無. 能緣本識. 亦爾得生	中邊論云. 是識所取四種境界. 謂塵根我及識所攝. 實無體相. 所取既無. 能取亂識. 亦復是無

위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別記』와 會本 『別記』의 문장이 상당히 다르다. 이미 설명했듯이 會本 『別記』의 문장은 『中邊分別論』의 문장과 일치한다.³⁵⁾ 회본의 편집자가 직접 『中邊分別論』의 문장을 찾아서 고쳤을까? 해답은 1781년 교정본에 있다. 아래의 1781년 교정본(未, 16쪽, 2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頭註에 “舊中邊論上(二左)”로 되어 있으며 원문과 다른 문장에 대해서는 傍註로 원문을 써놓았다. 『會本』에서는 방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회본의 편집자가 직접 대장경 원문을 찾았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지만, 위에서 인용한 문구의 바로 앞 문장(1행)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 문장(1행)의 간본 『別記』와 會本 『別記』 간에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난다.

<표 8> 『별기』와 『회본별기』의 내용비교(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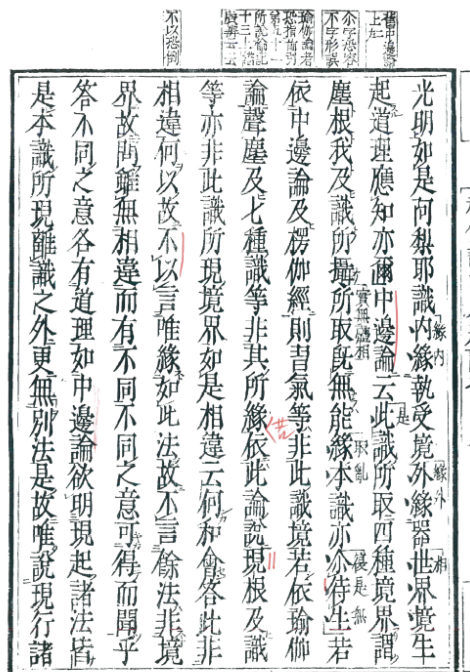
『別記』(H1.691a, T44.235c)	會本『別記』(H1.760b, X45.2206b)
如是阿梨耶識. 內緣執受境. 外緣器世界境. 生起道理. 應知亦爾	如是阿梨耶識. 緣內執受境. 緣外器相. 生起道理. 應知亦爾

34) 김천학(2017), 267-270.

35) 김천학(2017), 270.

이 부분 역시 1781년 교정본의 傍註에 따라 수정하였다. 아래 판본의 4행 아래에는 ‘依瑜伽論’이라는 문장이 있고, 頭註에는 ‘瑜伽論第五十一’로 되어 있다. 즉, 판본의 간행자는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1781년 교정본의 편집자는 아래 판본 1행의 문장도 『瑜伽論』 문장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방주의 문장은 『瑜伽論』 문장과 거의 일치한다. 즉, 『別記』의 문장이 『瑜伽論』의 문장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瑜伽論』에 근거해서 傍註를 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別記』 문장은 『顯揚聖教論』(T31.566a)과 일치하는 문장으로 『瑜伽論』의 문장이 아니다. 1781년 교정본의 간행자가 『瑜伽論』 문장으로 잘 못 알고 傍註를 붙인 것이고, 『會本』의 編者가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會本』의 편자가 경전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1781년 校訂本을 통해서 고친 것이 된다. 한편, 이 부분은 태현의 『略探記』(T44.417c14-24)에 장문이 인용되며, 교정본 『별기』 문장과 일치함을 부언해 둔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會本』은 원호 본래의 문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國立中央圖書館 제공

최근에 울산대 토대연구사업팀에서 원호 『別記』와 『疏』에 대한 신회본을 시도하고 있다.³⁶⁾ 신회

36) 김준호, “원호의 『대승기신론소별기』의 구문대조와 <신회본(新會本)> 편찬의 필요성 - 『대승기신론』 『입의분

본을 만들 때는 에도시대 간본의 『別記』와 『疏』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불교대계』의 회본 형식을 최대한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別記』와 『疏』의 정본화가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會本』의 전승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많은 역주서들이 저본으로 삼았던 『會本』의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別記』와 『疏』의 부분 정본화를 시도하여, 각 텍스트의 교정이 어느 정도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4. 『別記』와 『疏』 定本化

4.1 『別記』의 定本化 시도

『別記』에 대해서는 비록 완본은 아니지만, 기존 『別記』 판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본의 존재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하였다. 본고에서는 『別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정본화를 시도한다. 범례는 아래와 같다.

<凡例>

- 一. 본문은 원칙적으로 正字를 사용한다.
- 一. 通用字 및 異體字는 무시하거나 1회에 한정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變과 反은 같은 글자이다. 물론 다른 글자로 쓰일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 一. 寫本을 底本으로 하고, 사본의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 또는 탈자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글자를 바꾼다. 예를 들어, [善] 【底】는 저본에 ‘善’자가 탈락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각각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일일이 정보를 기록한다.
- 一. 각본은 다음과 같은 약호를 사용한다.
金澤文庫寫本→【底】，1659年版本→【版】，1781年校訂本→【校】
續藏經本起信論疏記會本→【會】，佛教大系→【大】，韓國佛教全書의 編集者註→【韓編】
- 一. 인용처 등을 교감 및 참조할 경우 『起信論疏』는 『疏』, 대현의 『起信論內義略探記』는 『略探記』로 하며, 그 외의 참고문헌에 대해서도 적당한 약호를 사용한다.
- 一. 문장은 마침표(.)와 쉼표(,)만을 사용한다.
- 一. 단락구분은 임의로 하였다.

(立義分)을 중심으로 -,” 『한국불교학』 80권(2016. 12), 7-27.

起信論別記 一卷³⁷⁾ 釋元曉撰³⁸⁾

將³⁹⁾釋此論略有二門. 一者述論大意, 二即依文消息. 言大意者, 然夫⁴⁰⁾佛⁴¹⁾之爲道也, 蕭⁴²⁾焉空寂, 湛⁴³⁾爾沖⁴⁴⁾玄. 玄之又玄之, 豈⁴⁵⁾出萬像之表, 寂之又寂之, 猶在百家之談. 非像表也, 五眼不能見其體⁴⁶⁾. 在言裹也, 四辯不能談其狀. 欲言大矣, 入無內而莫遺. 欲言微矣, 包⁴⁷⁾無外而有餘. 將謂有邪⁴⁸⁾, 一如由⁴⁹⁾之而空, 將謂無耶⁵⁰⁾, 萬物用之而生. 不知何以⁵¹⁾言之強号⁵²⁾爲道.

卽⁵³⁾⁵⁴⁾其體也曠兮, 其若大虛而無其私焉, 蕩兮其若巨海, 而有至公焉. 有至公故. 動靜隨成. 無其私故. 染淨⁵⁵⁾斯融. 染淨融故, 眞俗平等, 動靜成故, 昇⁵⁶⁾降參差. 昇降參⁵⁷⁾差故, 感應路通, 眞俗平⁵⁸⁾等故, 思議路絕. 思議絕故, 體之者,⁵⁹⁾ 垂⁶⁰⁾影響而無方. 感應通故, 祈之者, 起⁶¹⁾名相而有歸. 所垂⁶²⁾影響, 非形非說. 既起⁶³⁾名相. 何起⁶⁴⁾何歸. 是謂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也.

自非杜口閉土, 目擊丈夫, 誰能論大乘於無乘, 起深信於無信者哉. 所以馬鳴菩薩, 無緣大悲, 傷彼無明妄風, 動心海而易漂+寸⁶⁵⁾, 愍此本覺眞性, 睡長夢而難悟, 同體智力, 堪造此論, 贊述如來深經

37) 寫本 表紙에 元曉起信別記 飛龍 湛睿가 縱書로 되어 있다.

起信論別記一卷=大乘起信論別記(本)【版】【校】, 大乘起信論別記卷本【大】

38) 釋元曉撰=海東沙門元曉撰【版】【校】【大】

39) 거의 같자임【底】

40) 자흔에 의해 판명【底】

41) 佛=佛+道【版】【校】【大】

42) 蕭【底】【校】【大】, 簫【版】, *『疏』=蕭

43) 湛【底】【校】【大】, 堪【版】, *『疏』=湛,

44) 沖【底】【大】, 冲【版】【校】, *『疏』=沖

45) 豈=[豈]【版】【校】【大】, *『疏』=豈

46) 躰【底】, 軀【版】【校】, 體【大】 通用字. 以下省略.

47) 包=苞【版】【校】【大】

48) 邪【底】=耶【版】 通用字. 以下省略.

49) *『由』疑『用』【韓編】

50) [耶]【底】

51) 자흔에 의해 판명【底】

52) [号]【版】【校】【大】

53) ‘道’+‘白’(아래)已’이 있다. ‘卽’으로 보인다. 제 본에 없는 글자이다.

54) 其體也至大然也: 會本別記(H1.733ab, X45.200b17)

55) 字痕에 의해 판명【底】

56) 字痕에 의해 판명【底】

57) 參=[參]【版】【校】【會】【大】

58) 平=[平]【版】【校】【會】【大】

59) 路絕思議絕故體之者 9字는 자흔에 의해 판명【底】

60) 垂=乘【版】【校】【會】【大】

61) 起=超【版】【校】【會】【大】

62) * 垂=海印寺本에 乘

63) 起=超【版】【校】【會】【大】

64) 起=超【版】【校】【會】【大】

65) 漂+寸【底】, 【版】【校】【會】, 漂【大】 *『疏』=漂

奧義. 欲使爲學者, 暫開一軸, 遍掬⁶⁶⁾三藏之指⁶⁷⁾. 爲道者, 永息萬境, 遂還一心之源.

68) 其爲論也, 無所不立, 無所不破. 如中觀論十二門論⁶⁹⁾等, 遍破諸執, 亦破於破, 而不還許能破所破, 是謂往而不返⁷⁰⁾論也. 其瑜伽論攝大乘等, 通立深淺, 半滿⁷¹⁾法門, 而不融遣自所立法, 是謂與而不奪論也. 今此論者, 既智既仁, 亦玄亦博⁷²⁾, 無不立而自遣, 無不破而還許. 而還許者, 顯彼往者往極而自返⁷³⁾立. 而自遣者, 明此與者, 與窮而並奪⁷⁴⁾. 是謂諸論之祖宗, 群諍之評主也.

所述雖廣, 可略而言. 開二門於一心, 惣括⁷⁵⁾摩羅百八之廣語⁷⁶⁾, 示性淨於相染, 普綜踰闍十五之幽致, 至如鷄林一味之宗, 鷲山 無二之趣, 金鼓同⁷⁷⁾性三身之極果, 花嚴瓔珞四階之深因, 大品大集曠蕩之至道, 日藏月藏祕蜜⁷⁸⁾之玄門. 凡此等輩衆典肝心, 一以貫之者, 其唯此論乎. 故下文云, 爲欲總攝如來廣大深法無邊義故, 應說此論

然以此論. 言邇理遐. 文少義多. 從來釋者. 鈔具⁷⁹⁾其宗. 良以⁸⁰⁾各守所習. 而牽文. 不能虛懷而尋旨. 由是不近論主之意. 或望源而迷⁸¹⁾流. 或把葉而亡⁸²⁾幹. 或割領而補袖. 或折枝⁸³⁾而蒂⁸⁴⁾根. 今直依此論文屬當所述經本. 略舉綱⁸⁵⁾領. 爲自而記耳. 不敢望宣通也⁸⁶⁾. 述大意竟.

위 『別記』는 짧은 서문에만 회본에 대한 주기, 자흔 등을 제외하면 38곳에서 글자의 차이가 있다. 38곳 가운데 사본을 취할 경우 해석이 상당히 달라지는 곳(45,60,61,63,64,70,71,73,74,81,82) 11곳을 들 수 있다. 현재 텍스트는 500곳 이상 차이가 난다.⁸⁷⁾ 따라서 『別記』는 정본화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66) 掬 *『疏』=探

67) *『指』疑『旨』【韓編】

68) 其爲論至評主也 =會本別記(H1.733b, X45200c7)

69) [論]【底】

70) 返=遍【版】【校】【會】【大】

71) 半滿=判於【版】【校】【會】【大】

72) 博【底】【會】【大】, 傳【版】【校】 *『傳』疑『博』【韓編】

73) 自返=遍【版】【校】【會】【大】

74) 與窮而並奪=窮與而奪【版】【校】【會】

75) 惣括=括【版】【校】【大】 *『疏』=惣括

76) 語=誥【版】【校】【大】 *『疏』=誥

77) 銅【底】, 同【版】【校】【大】

78) 蜜=密【版】通用字

79) 具=得【版】【校】【大】, *『疏』=具

80) *『以』疑『由』【韓編】

81) 迷【底】【校】【大】, 述【版】, *『疏』=迷

82) 亡=云【版】【校】【大】, *『疏』=亡

83) 枝【底】【大】, 杖【版】【校】, *『疏』=枝 *『杖』疑『枝』【韓編】

84) 蒂=帶【版】【校】【大】

85) 綱=總【底】, 【版】【校】【大】綱

86) 也=世【版】【校】【大】, *也【順高『起信論別記聽集記』】(佛全93,263上)

87) 김천학(2017).

4.2 『疏』의 정본화 시도

『疏』는 현재 에도시대(1696년) 판본이 유일한 완본이다. 따라서 정본화 시도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한 해인사 판목 해당부분과 현재 에도시대 판본을 비교하면 23곳 정도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서 기존 『원효소』 가운데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두 곳 정도 정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징관의 『연의초』에 이 부분이 인용명 없이 활용되어 있고, 그 부분과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해인사 판목이 고형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판목에 해당하는 원문을 다 제시하고, 그 차이를 현 텍스트에 註記를 붙이는 형식으로 양쪽을 비교하였다. []가 현재 해인사 판목 부분이다. 판목의 아랫부분은 마모되어 정확히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일이 주기를 붙이지는 않았다. 한편, 澄觀의 『演義鈔』와 가마쿠라시대 順高의 『起信論本疏聽集記』에 부분적 인용이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 대상으로 하였다.

<大正藏(T44.205a16-c22) 및 韓佛全(H1.702b9-703b20) 텍스트>

釋分內第 [三段文而作因緣. 彼文分別發趣道相, 令利根者決定發心進趣大道, 堪任住於不退位故, 故言爲令善根乃至不退信故. 第四因者, 爲下修行信心分, 初四種信心及四修行之文 而作因緣, 故言爲令修習信心故也. 第五因者, 爲下第四修行末云, 復次若人雖修⁸⁸⁾信心, 以從先世來多有重⁸⁹⁾惡業障以⁹⁰⁾下, 說除障法五行許文而作因緣, 故言爲示方便消惡業障乃至出邪網故. 第六因者, 爲彼云何修行止觀以⁹¹⁾下, 乃至止觀不具則⁹²⁾無能入菩提之道, 三紙許文而作因緣, 故言修習止觀乃至心過故. 第七因者, 爲彼修行信心分末云⁹³⁾, 復次衆生初學是法以⁹⁴⁾下, 勸生淨土八行許文而作因緣, 故言爲示專念方便生於佛前等也. 第八因者, 爲彼第五勸修利益分文而作因緣, 故言爲示利益勸修行故. 次言有如是等因緣所以造論者, 第三總結也. 直顯因緣竟在於前. 此下*遺疑. 有問有答. 問中言經中具有此法者, 謂依前八因所說之法, 如立義分所立法義, 乃至勸修⁹⁵⁾分中所示利益. 如是等⁹⁶⁾諸法, 經中具說. 皆爲衆生離苦得樂, 而今更造此論, 重說彼法者, 豈非爲求名利等耶. 以之故言何須重說. 是舉疑情而作問也. 答中有三. 略答, 廣釋, 第三略結答⁹⁷⁾. 答中言脩多羅中雖有此法者, 與彼問辭也. 根行不等受解緣別者, 奪其疑情也. 經論所說雖無別法, 而受解者根行不同. 或

88) 修+行 9-6行

89) 重+罪 9-6行

90) 以=已 9-6行

91) 以=已 9-8行

92) 則=卽 9-9行

93) 云=[云] 9-11行

94) 以=已 9-11行

95) 修+利益 9-17行

96) 等=[等] 9-18行

97) 略結答=結答略 9-21行

有依經不須論者, 或有依論不須經者. 故爲彼人必須造論. 答意如是. 次則⁹⁸⁾廣顯. 於中有二. 先明佛在世時說聽俱勝. 後顯如來滅後根緣參差. 初中言如來在世衆生利根者, 明聽人勝. 能說之人色心業勝者, 顯說者勝. 圓音一演者, 成說者勝. 異類等解者, 成聽人勝. 則不須論者, 結俱勝義. 此言圓音即是一音. 一音圓音, 其義云何. 昔來諸師說者不同. 有師說云. 諸佛唯是第一義身, 永絕萬⁹⁹⁾像, 無形無聲. 直隨機現無量色聲, 猶如空谷無聲, 隨呼發響. 然則¹⁰⁰⁾就佛言之, 無音是一. 約機論之, 衆音非一. 何意說言一音圓音者. 良由一時一會異類等解, 隨其根性各得一音, 不聞餘聲, 不亂¹⁰¹⁾不錯¹⁰²⁾, 顯是音¹⁰³⁾奇特, 故名一音. 音遍十方, 隨機熟處無所不聞, 故名圓音, 非謂如空遍滿無別韻曲. 如經言隨其類音普告衆生, 斯之謂也. 或有說者. 就佛言之, 實有色聲, 其音圓滿, 無所不遍, 都無宮商之異, 何有平上之殊. 無異曲故名爲一音, 無不遍故說爲圓音. 但由是圓音作增上緣, 隨根差別現衆多聲. 猶如滿月唯一圓形, 隨器差別而現多影. 當知此中道理亦爾. 如經言, 佛以一音演說法, 衆生隨類各得解故. 或有說者. 如來實有衆多音聲. 一切衆生所有言音, 莫非如來法輪聲攝. 但此佛音無障無礙, 一即一切, 一切即一. 一切即一, 故名一音, 一即一切, 故名圓音. 如華嚴經言. 一切衆生語言法, 一言演說盡無餘. 悉欲¹⁰⁴⁾解了淨密音, 菩薩因是¹⁰⁵⁾初發心故. 又此佛音不可思議, 不¹⁰⁶⁾但一音言¹⁰⁷⁾即一切音, 亦於諸法無不等遍. 今且略舉六雙, 顯其等遍之相. 一¹⁰⁸⁾者等於一切衆生及一切法. 二者等於十方諸刹及三世諸劫. 三者等於一切應身如來及一切化身諸佛. 四者等於一切法界及虛空界. 五者等於無礙¹⁰⁹⁾相入界及無量出生界¹¹⁰⁾. 六者等於一切行¹¹¹⁾界及寂靜涅槃界. 此義如華¹¹²⁾嚴經三種無礙¹¹³⁾中說. 隨一一聲等此六雙, 而其音韻恒不雜亂¹¹⁴⁾. 若音於此] 六雙有所不遍, 則音非圓.

이상으로 海印寺 板木과 현재 유통되는 텍스트, 즉 일본 에도시대 판본,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演義鈔』, 『起信論本疏聽集記』와 비교해 본 결과 주88부터 주114까지의 차이를 적시하였다. 이

98) 則=卽 9-25行

99) 萬=万 10-4行 * 萬 『演義鈔』(T36.616c)

100) 則=卽 10-5行 * 則 『演義鈔』(T36.616c)

101) 亂=乱 10-7行 * 亂 『演義鈔』(T36.616c)

102) 錯=沓 10-7行 * 沓 『演義鈔』(T36.616c)

103) 音=[音] 10-8行 * [音] 『演義鈔』(T36.616c)

104) 悉欲=欲悉 10-19行

105) 是=此 10-20行

106) 不=非 10-20行 * 非 『起信論本疏聽集記』(92,318 下)

107) 言=[言] 10-21行 * [言] 『起信論本疏聽集記』(92,318 下)

108) 一 * 第一 『起信論本疏聽集記』(92,318 下)

109) 礙=導 10-25行

110) 出生界 * 於世界海 『起信論本疏聽集記』(92,318 下)

111) 行 * 法 『起信論本疏聽集記』(92,318 下)

112) 華=花 10-26行

113) 礙=量 10-26行 * 量: 『起信論本疏聽集記』(92,318 下)

114) 亂=乱 10-27行

가운데 단순한 이체자, 혹은 통용자(90-92,94,98-101,109,112,114) 11곳을 제외하면, 16곳이 다르다. 16곳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주88과 주89는 『기신론』 원문 인용이며, 해인사본대로 각각 ‘修行’, ‘重罪’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93, 주96은 해인사본에 각각 ‘云’과 ‘等’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95는 과문의 명칭이므로 해인사본대로 ‘修利益’이 있어야 한다.

주97은 해인사본으로 판본의 착간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즉 현 텍스트인 ‘第三略結答. 答中’은 ‘第三結答. 略答中’(海印寺本)이 되어야 문맥에 맞다.

주102는 ‘不亂不錯’(현텍스트)과 ‘不亂不沓’(해인사본)의 차이이다. 둘 다 ‘어지럽지도 섞이지도 않음’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정관의 『演義鈔』에서 ‘不亂不沓’을 사용하며, 조사결과 이 부분은 인용명 없이 T36.616c9行(諸佛唯是)에서 24行(類各得解)까지 원호 『疏』를 인용한 부분이다. 주103의 ‘音’은 澄觀의 『演義鈔』에도 없다. 이 두 가지 예로 海印寺本의 文句가 시대적으로 앞서며, 원호 『疏』 처음 형태에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104는 판본이, 주105는 海印寺本이 經文에 맞다. 주106은 문법적으로 海印寺本이 자연스럽고, 그 경우, 주107의 ‘言’도 海印寺本처럼 없어야 된다. 『起信論本疏聽集記』가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주108은 『起信論本疏聽集記』와의 차이인데, ‘第’자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다. 주110과 주111도 『起信論本疏聽集記』와의 차이이며, 해인사본과 판본을 따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특히, 주111은 흔히 ‘法’이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원호가 『華嚴經』 『性起品』을 참고한 것인데, 단적으로 ‘得一切行界等身, 得寂滅涅槃界等身’(T9.626c)을 보면 알 수 있다.

주113은 기존 텍스트의 ‘礙’와 海印寺本의 ‘量’ 둘 다 틀리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疏』의 내용은 부처의 음성이 동일하게 모든 법에 편만하지 않음이 없음을 6쌍으로 밝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性起品』의 ‘三種清淨無量’(身無量, 音聲無量, 無礙心無量)을 지시한다. 특히, 이 『性起品』의 문장은 원호가 『無量壽經宗要』, 『涅槃宗要』, 『菩薩本業經疏』에서도 활용할 정도로 흥미를 가진 구문이었다. 따라서 ‘三種無量’이라고 되어 있는 해인사본이 정확하다. 이 부분은 『起信論本疏聽集記』에서도 ‘量’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양 본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특히, 澄觀의 『演義鈔』나 에도시대 이전의 문헌을 통해서 볼 때 海印寺本이 원호 『疏』 본래 형태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현행 간본 『소』에는 수정되어야 할 곳이 다수 확인되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원호의 『別記』, 『疏』, 『會本』이 전승되는 양상과 함께 『別記』, 『疏』에 대해서 정본화를 일부 시도하였다. 우선 원호 『別記』는 중국에서 法藏이 최초로 활용한다. 하지만, 그 이후 아직

그 활용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太賢의 『略探記』에 『疏』와 동등한 위치를 점하면서 사용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 이후에 활용 예를 찾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나라시대 화엄학승 壽靈에게 『別記』가 존중되며, 이후 에도시대까지 줄곧 이용된다. 목록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라시대 正倉院 文書에 743년 필사기록을 보이면서부터 에도시대까지 확인된다.

『疏』도 역시 중국에서는 법장이 최초로 활용한다. 이후 중국에서는 曇曠, 澄觀, 宗密 등으로 이어지면서 『疏』의 활용은 확인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太賢의 『略探記』 이후 均如의 저술에서 『疏』의 활용이 1회 정도 확인될 뿐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741년의 필사기록이 확인되며 헤이안시대, 가마쿠라시대, 에도시대를 거치면서 줄곧 활용되었다. 『疏』의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활용빈도가 높으나, 중국에서 『疏』만이 활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疏』와 비등한 정도로 『別記』가 활용된다.

한국에서는 『疏』와 『別記』보다도 『會本』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1781년의 『別記』 교정본의 존재를 통해서 『會本』을 활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밝혔으며, 신회본을 구상할 때 『會本』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도 제기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別記』와 『疏』에 대한 정본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완본으로 남아있는 원효 『疏』와 『別記』는 일본의 에도시대 판본을 원본으로 하고 있다. 정본화를 일부 시도한 결과, 『疏』와 『別記』 모두 현재 판본이 선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본과의 엄밀한 대조, 그리고 에도시대 이전의 인용문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교감해야 할 것이다.

『別記』는 완본은 아니지만 상당한 분량의 사본이 가나자와 문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정본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疏』의 완본은 대정장의 원본인 에도시대 板本 외에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화엄종과 진언종에서 상당히 활용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일본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해인사 판목의 존재를 통해서 한국 어딘가에도 원효 『疏』가 존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疏』와 『別記』 이외 원효의 기신론 관련 저술의 장문의 일문이 확인된 것도 중요한 성과일 것이다.

<참고문헌>

- 起信曉疏 海印寺板木寫眞版.
 元曉 『起信論別記』 寫本.
 元曉 『起信論別記』(H1.T44).
 元曉 『起信論疏』(H1.T44).
 澄觀 『演義鈔』(T36).
 順高 『大乘起信論本疏聽集記』(日佛全 93).

- 김준호.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의 구문대조와 <<신회본(新會本)>> 편찬의 필요성 - 『대승기신론』 『입의분(立義分)』을 중심으로 -.” 『한국불교학』 80권(2016. 12). 7-27.
- 김천학. “쇼묘지소장·가나자와 문고 관리 원효 『기신론별기』의 기초연구.” 『한국사상사학』 제56집(2017. 8). 245-276.
- 김천학. “원효 저술 일문(逸文)의 실태와 의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사업의 실효와 지향』 (2016.9.30). 39-63.
- 林基榮. “海印寺 私利板殿 所藏 木板研究.”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 박인석 옮김. 『대승기신론내의약탐기』.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 박태원. 『大乘起信論思想研究』. 서울: 민족사, 1994.
- 박현규. “金陵刻經處와 한국인 편저 경관.” 『국학연구』 제6집(2005. 봄여름). 473-498.
- 定源. “敦煌寫本より發見された新羅元曉の著述について.” 『불교학리뷰』 제7집(2010. 8). 155-180.
- 定源. 『佛敎文獻論稿』. 上海: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 佐々田悠. “정창원문서와 광명황후원경.” 『서지학연구』 제56집(2013. 12). 521-544.
- 崔鉉植. “신라견등의 저술과 사상경향.” 『한국사연구』 115호(2001. 12). 1-37.
- 崔鉉植. “均如 華嚴思想 研究 - 敎判論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 『해인사 사간관 보수사업 보고서』. 합천: 합천군·법보종찰 해인사, 2006.
- 吉津宜英. “元曉の起信論疏と別記との關係について.” 『韓國仏敎學SEMINAR』 9(日本印度學佛敎學留學生會, 2003. 12).
- 大藏經報 臨時增刊 第24號(1904).
-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138(朝鮮學會, 1990). 1-106.
- 梶浦晋. “近代における大藏經の編纂” 『常照』 51(佛敎大學圖書館, 2002). 10-15.
- 柏木弘雄. 『大乘起信論の研究』. 春秋社, 1981.
- 福士慈稔. 『日本佛敎各宗の新羅・高麗・李朝佛敎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天台宗にみられる海東佛敎認識-』 제1권. 야마나시: 身延山大學, 2011.
- 福士慈稔. 『日本佛敎各宗の新羅・高麗・李朝佛敎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佛敎認識(法相宗の部)-』 제2권下. 야마나시: 身延山大學, 2012.
- 福士慈稔. 『日本佛敎各宗の新羅・高麗・李朝佛敎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三論宗・法相宗にみられる海東佛敎認識(三論宗の部)-』 제2권上. 야마나시: 身延山大學, 2012.
- 福士慈稔. 『日本佛敎各宗の新羅・高麗・李朝佛敎認識に關する研究 - 日本華嚴宗にみられる海東佛敎認識-』 제3권. 야마나시: 身延山大學, 2013.
- 福士慈稔. 『新羅元曉研究』. 동경: 大東出版社, 2004.